# 2015 2.15 연중 제 6 주일

**제 1 독서 : 신 명기** 13,1-2.44-46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10,31-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음 : 마르코** 1,40-45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스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이**번주 수요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에 들어갑니다. 사순시기는 교회가 정한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구원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저도 신부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나의 마음

을 열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 분의 품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 병의 치유를 청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 사실은 구약시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병들이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병의 원인이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바로 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바로 그 스트레스가 쌓여 병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모든 병들이 죄에 근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우기 나병은 그당시에는 치료방법이 없었으며 환자의 상처에 접촉을 하면 다른사람에게도 그 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실상, 아픈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공동체에서 특히 사랑하는 가 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몸 아픈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견디어내기 가장 힘든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삶, 가족으로부터도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내가 혼자라며 느끼며 사는 삶은 오히려 몸이 아픈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환자는 이 두가지를 다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병이 나아진 이유도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만짐**이 아니었을까 ? 하고도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 시대에 나병이라는 것이 죄가 그 근원이었다고 하였듯이,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나병이 바로 우리자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병을 일으키는 죄의 원인인 이기심과 질투심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모두 우리 이웃을 해칠수 있고 나 자신을 해칠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한 알아차리더라도 인정하려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때문이지요 ?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나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 모든 잘못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자식이, 내 부모가 , 내 이웃들이 하는 것이지 ! 내 잘못은 없어 ! 하고 고집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삶이 찌들어지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맙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나병환자는 자기가 나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나병을 완치시켜 줄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주 겸손하게 청합니다. " 이거 안들어 주면 당신을 안 믿을 거야 ! 제 청을

안들어 주시면 이제부터 하느님을 안 믿을거야!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는자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겸손되이 청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갈바리아 산에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기도와 거의 비슷하지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요."**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 할 때에 이런자세로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냉담자는 없을 것입니다. 냉담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은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풀리지를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이 계속되다보면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께 겸손되이 청하고, 그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복음에서는 직접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외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병환자가 무슨 헛소문이 돌아? 내가 이제까지 그런것을 보지 못했는데.... 누가 ?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이야? 바보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 하고 자기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는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사순시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자세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흠숭하는 자로서 하느님께 올바른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삶속에서 내 자신과 내 관심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흠숭을 드려야 마땅한 하느님께 최고의 대우를 해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총의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섯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시면서 이 사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히스페닉 공동체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잘 지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하는 말이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삽니다." 입니다. 쁘리메라 디오스, 무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쁘리메라 디오스! 우리도 이런 말의 표현이 우리의 입에서 스스럼 없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 귀담아듣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또 그분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는가?"**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분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노력 하는지 요?

세째로

**"나는 내 생활안에서 하느님을 높이 받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 독서 바오로사도께서 말씀하시지요, 모든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모든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나 남미축구를 보면 선수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관심있게 보신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교체되는 선수가 성호를 긋고 축구장에 입맞춤을 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시작 하기 전에, 끝맺었을 때에 그 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와 청원을 드리고 있는지?

네째로

**"나는 내 주위의 헐벗고 고통을 느끼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달콤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결코 달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콤하신 분이었다면 사두가이, 바리사이, 율법학자, 대 사제들이 예수님을 언제 잡아죽일까? 하며 벼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신 분이시었기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게 사는 지도계층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 혼자살고 가난한 이들, 병으로 고통받고사는 이들에게로 향한 바로 그 분의 연민의 정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사는가?

다섯째로

**"나는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지 않는 분들, 지금 불만이 많으 신 분들, 삶의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찌들어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내가 일상 생활에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란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쁜 것은 빨리보고, 빨리 배웁니다. 또한 칭찬보다는, 감사하기 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비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100%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80%이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좋은 소식 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대부분입니 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듣고 싶어 하는것이 남이 잘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항상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뉴스 자체도 바뀔 것 입니다. 왜냐?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뉴스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3,40 년전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한결같이 권선징악이었 습니다. 항상 좋은일로 끝납니다. 고통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헐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귀신얘기, 쳐부수고, 깨부수고, 죽이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 한다는 것 이지요.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분명 하느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이웃을 보니 참 아름답더라! 자연을 보니 참 아름답더라! 이것만이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동안 세상을 이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지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꾸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쁜 쪽으로 기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는 더 힘을 써서 좋은 쪽으로 생각 할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오늘 미사중에 제가 질문드린 다섯가지 사항을 되새기시면서 다가오는 이 사순을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3,1-2.44-46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44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45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오.', '부정한 사람이오.' 하고 외친다. 46 병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32(31),1-2.5.11(◎ 7 참조)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0,31—11,1
형제 여러분, 31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32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33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0-45
그때에 40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